



북한 만행에 화상 규탄대회 열어

성명 낭독 등 대북규탄... 17개 시도지부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 이하 자총)은 북한의 해양수산물 공무원 총살 만행에 대한 온라인 화상 규탄 대회를 가졌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대책 지침에 따라 현장에서의 대규모 집회가 어려운 만큼, 화상으로 국민의 충격과 분노를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총은 9월 25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본부에서 본부 임직원과 17개 시도지부 회장 및 임직원들이 온라인 화상으로 모여 북한의 반인륜적 만행에 대한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향후 효과적인 만행 규탄을 위한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박종환 총재는 “반인륜적인 북한의 만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은 만행에 대해 명백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상회의를 마친 뒤 자총 본부 앞에서 박종환 총재, 그리고 최역 사무총장 및 주요 임직원들이 성명서 낭독 및 규탄 구호를 제창했다. 이후 서울시지부 등 17개 시도지부와 228개 시·군·구지회에서 5~10명 내외의 회원들이 릴레이 규탄 성명 낭독 및 규탄 구호 제창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지부는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지부 건물 앞에서 이영석 회장 등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원인 규명과 북한의 진정성 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전북도지부도 덕진예술회관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졌으며, 부산시지부는 부산자유회관, 대구시지부는 낙동강승전기념관, 대전시지부는 지부 건물 앞, 울산시지부는 울산시청 앞, 경기도지부는 지부 건물 앞, 강원도지부는 지부 건물 앞, 충북도지

부는 지부 건물 앞, 충남도지부는 지부 건물 앞, 전남도지부는 장성읍 군민회관 앞, 경북도지부는 지부 건물 앞, 제주도지부는 지부 건물 앞, 경남도지부는 지부 건물 앞에서 각각 소규모 규탄 행사를 가졌다.

지부 이외 전국 228개 지회에서도 북한의 만행에 대한 국민의 충격과 분노를 표출할 계획이다.

성명서

북한의 해양수산물 공무원 총살 만행을 규탄한다!

국방부는 북한군이 어업지도업무를 수행하다 지난 9월 21일 실종된 해양수산물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을 총격을 가해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웠다고 확인했다.

어업지도선 선원이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들어갔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유 불문하고 북한군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 도중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박왕자 씨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악몽과도 같은 사건이다. 당시 북한은 박왕자 씨의 죽음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사과하는 대신 발뺌과 핑계로 일관하여 급기야 금강산 관광 중단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상기해야 될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 해외 정상들에게 북한과의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남북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의 총살이라는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한국자유총연맹은 온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자총은 대한민국 최대 국민운동단체로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북한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마지막 순간에서야 자총도 북한의 변화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북한은 어업지도선 선원의 죽음의 이유와 과정에 대해 소상히 밝혀라.

하나. 북한은 선원의 죽음에 대한 책임자를 찾아서 반드시 처벌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의 만행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2020. 9. 24.



한국자유총연맹
KOREA FREEDOM FEDERATION

총재 박종환 350만 회원 일동

“고향 가는 길 잠시 멈춰주세요”

추석 앞두고 고향 방문 자제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캠페인

한국자유총연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향길 잠시 멈춤’ 캠페인을 펼쳤다.

자총은 9월 29일 각 지부 및 지회에 공문을 보내 오는 10월 11일까지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 지침에 따라 고향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각 지부 및 지회에서는 ‘올 추석엔 잠시 멈춤’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지역별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 캠페인을

펼쳤다. 또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추석연휴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귀성·역귀성을 자제하고 제례 등 행사 참석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